



광남일보



 김중기 여수섬박람회 조직의 사무총장 취임 "섬박람회 성공 개최라는 목표 향해 온힘" 3	 LH 광주전남본부, 올해 6044억원 신규 투자 순천도시첨단·선운2 개발사업 등 주거안정 '총력' 7	 나주, 수질·침수 예방 '두 토끼' 잡는다 윤병대 시장 "지역 하수 처리 효율 제고" 9	 신지애, JLPGA '통산 상금 1위' 새역사 13억8074만엔...후도 유리 제치고 최고액 12
--	--	---	--

조건 제779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윤력 2월 11일)



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제17차 광주시민총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내린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시 구속과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주 '尹탄핵 선고'...정국 회오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14일째 내려질 전망이다.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2·5면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급격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와 이번 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14일째 선고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두 차례 모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 뒤인 금요일

현재, 이르면 14일 전망...평의 늘어 지연 관측

8인 체제 결론 가능성...찬반 대립 갈수록 격화

尹 구속 취소로 관저 복귀...지역사회 거센 반발

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매일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을 전제로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가 앞서 두 대통령 사례보다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경우 1~2주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

기할 가능성도 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이긴 하지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인용은 기각이든 그 결과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 날인 지난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탄핵 반대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전경호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 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과 촛불행동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2면에 계속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의대 정원 문제 별개로 국립전남의대 신설해야”

정부, 내년 정원 조건부 동결
30년 숙원 전남 의대 또 위기
김영록 지사, 약속 이행 촉구

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전남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복병을 만났다.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되어 하는데,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결을 위해 이달중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 등을 감안해 의대 정원 문제와 별개로 의대 신설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그 이후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2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었던 전남도는 정부가 전남 의대 신설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발표한 것을 놓고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출했다.

실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이날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함께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의대 증원과 별개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적극 부응해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까지 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

대학'을 정부에 추천했다"며 "정부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발표는 2026학년도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인원과 관련이 있다"며 "전남도 의대 신설은 적절한 시점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오랫동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으로,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고, 전남도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에 통합의대가 문을 열려면 4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왔다.

순천대는 의대신설을 지렛대로 목표로 삼았던 2026학년도 목포대와 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도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증원 등 정원 조정의 불씨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문 순천대 총장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정"이라며 "전남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결적인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전남 의대 신설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 이재종 선출

이재종(49·사진)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이재종·최화삼 예비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 결과 이 후보가 1위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이 후보는 앞서 다른 후보 4명과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최화삼 예비후보와 7~8일 이틀간 2인 결선을 치렀다.

이 후보는 신인 가점 20%를 받아 탈당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은 최 후보를 권



리당원 50%·일반인 50% 지지를 합산 결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잘 사는 부자 농촌, 군수가 직접 댄다'는 가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 추경 추진 등과 연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교육 특별군 담양(교육)

△담양 교통혁명 시차(교통) △국립유식처 담양에서 놀자(관광)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돌봄·육아)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 변수가 없으면 오는 4월 2일 치러질 예정인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이 후보와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철원(62) 담양군의회 의장이 본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품질 파크골프장
국내 최고의 전문 생산 시설

뉴월드파크골프

파크골프채- 과학에 예술을 더하라



✓ 뉴월드만의 독자적인 헤드 제조 기술
(단 한 개의 나사로 없는 일체형 볼드 성형 기술 특허중 보유)

지역 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중! ☎ 062) 515-9600



* 광주역광장에서 무등산쪽으로 150m